대전주보

2020년 사목지표
소통과 친교를 이루는 교구 공동체
– 교구 시노드 정신이 뿌리내리는 해 –

발행 유흥식(제2583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전화** 042 · 630 · 7700 **팩스** 042 · 630 · 7755
주소 34539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86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삽티 성지
충남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491 / http://cafe.daum.net/southnaepo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2020년 7월 19일(가해)

제1독서 지혜 12,13.16–19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2독서 로마 8,26–2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 13,24–43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9시 주모경 바치기
2019.12.1~2020.11.28

한끼100원나눔운동 2020년 사랑의 온도현황 30.4℃
2020년 총 모금액 304,987,267원
7.3~9 모금액 본당 9,864,260원 / 단체 및 개인 365,700원

말씀의 향기

아픈 지구를 회복시키는 가톨릭농민

강승수 요셉
대전가톨릭농민회 전담

코로나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가 '인류의 자연 생태 질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과도한 개입'이라고 점잖게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와 약탈이요 폭력'임을 인정하고 인류는 회개해야 한다.

산업화된 농사도 그 폭력의 과정에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전 세계 석유의 30퍼센트가 농업에 사용되고 있고, 식량 생산의 95퍼센트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구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산업형 농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기순환 농법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 지구가 웃게 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 유기농사는 아픈 지구를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절 시작된 '가톨릭 농민회'는 생명 중심 가치관을 붙잡고 하느님 창조질서 보존을 사명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특히 수입농산물로 우리 농업이 커다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여 농사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세상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초월하는 생명 가치를 전하고자 노력해 왔다. 농민회원들은 유기순환 농법으로 토양과 생명을 회복시키고, 도시의 신자들은 생명농산물을 소비하며 농민들에게 힘을 주는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렇게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운동을 한국 천주교회가 앞장서 왔다.

농사를 효율성과 경쟁의 시장질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식량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에 물을 넣고 뺌으로써 홍수 · 가뭄 피해를 방지하고 있고, 벼들이 파랗게 들판을 메우고 있을 때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난화를 저감시켜 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된다. 온갖 작물들이 내뱉는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그들이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줌으로써 지구의 열을 내려 주고 있는 면.... 등을 생각할 때, 농사의 생태적인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몫을 지니고 있으니 농촌과 농민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나가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과 창조질서를 보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라야 비로소 인간의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코로나가 알려 주고 있다.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지속가능한 농사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지혜 12,19). 그동안 망가뜨려 온 지구에 대하여 미안함을 가지고 지금껏 지구 생태계를 지켜 왔던 농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자.

바울이
(870)
유판식 토마스

사회와 교회를 잇는 길잡이

숲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요즘 언제든지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가까운 숲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숲으로 가면 건강도 챙기고 거리 두기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완치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숲이 인간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신이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이지요. 따뜻한 햇빛, 맑은 공기, 생명의 공명 소리 그리고 피톤치드는 숲의 훌륭한 의사들입니다. 숲은 부작용 없는 치료약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받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숲속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20분 만에 스트레스호르몬(코티솔)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숲에서 1박 2일 머물면서 산림욕을 하면 면역력이 3배나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태초의 고향은 숲입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류의 삶은 자연과 단절되고, 우리 인간들은 스트레스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숲에서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숲치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숲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라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는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명상과 기도, 나무 그늘에서 건강체조도 합니다. 생명의 사잇길에 그려진 숲길을 걷습니다.

주변의 가까운 숲을 찾아 자기만의 힐링로드를 만들어 몸과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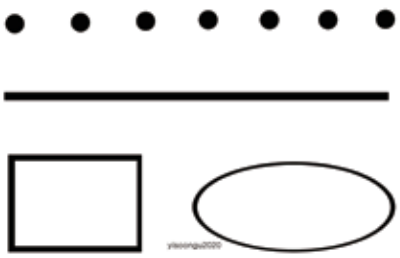
전상수 크리스토모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아뉴스데이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점(點)이 연결되면
선(線)이 되고
선이 연결되면
면(面)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리를 둔
점이지만
마음은 언제나
넓디넓은
한 울타리입니다.



1866년 3월 30일 황석두 루카 성인은 갈매못에서 순교하였고, 그의 시신을 황천일과 황기원이 수습하여 삽티에 안장하였다.

묘원 안에 대전교구의 역사를 함께하는 제대를 안치하여 '황석정(黃錫亭)'을 건립했고, 제대 뒤 비석에는 성인의 신앙 고백을 새겨 놓았다.

삽티 성지

삽고개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린 계곡에도 교우들이 숨어 살았는데 이곳에 '삽티 교우촌'이 있었다.

'삽고개'라고도 불리는 삽티(揷峙)는 박해시대의 교우촌으로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와 내산면 금지리 사이의 경계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부여군과 보령시의 경계를 이루는 월명산과 천보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남쪽과 북쪽 계곡에는 조선시대에 교우들이 숨어 살면서 삽고개를 사이에 두고 연통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삽고개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린 계곡에도 교우들이 숨어 살았는데 이곳에 '삽티 교우촌'이 있었다.

1850년대에 충북 괴산 연풍에 살던 황석두 루카 성인은 가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는데, 양자인 황천일 요한과 조카인 황기원 안드레아가 이 교우촌에서 살았다. 황석두 루카 성인은 산막골에서부터 가끔 삽티에 찾아와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격려하였다고 한다. 병인박해로 인해 1866년 3월 30일 황석두 루카 성인은 갈매못에서 순교하였고, 그의 시신을 황천일과 황기원이 수습하여 삽티에 안장하였다. 하지만 1866년 말 황천일과 황기원이 황석두 루카 성인의 시신을 안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홍산현에 체포되고 서울에 이수되어 무참히 처형당했다. 이로 인해 황석두 루카 성인의 시신이 안장된 정확한 위치를 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1922년 시복조사재판에서 72세의 나이로 황기원의 딸 황 마르타는 "병인년 4월 16일에 나의 백부가 가서 시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홍산 삽티에 묻었습니다. 지금은 자손이 없기 때문에 가더라도 찾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황 마르타의 증언 이후 이곳 삽티의 황석두 루카 성인 안장묘를 찾아 돌보거나 옮긴 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1962년 삽티 일대를 개간 작업하던 외교인들이 스러진 묘터에 묻혀 있는 항아리 속에서 십자고상과 성모상과 묵주 등 성물을 발굴했다. 그 발굴지점을 교회사학자들은 황석두 성인의 안장지라 신빙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장 신빙지점은 1990년대에 타지인들의 문중묘역으로 바뀌었다. 당시 발견된 유물들은 현재 서울 절두산 성지의 순교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2012년 윤종관 신부는 성물 발굴지에서 분할된 지번의 산지를 매입하고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2016년 성지 조성을 시작하였다. 2018년 부여군은 성물발굴지점으로부터 100미터 거리의 봉우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황석두 성인의 안장기념 자리로 표시했다. 십자가를 향하여 순례자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를 '황석원(黃錫園)'이라 칭하고 황석두 성인 안장 묘원을 꾸몄다. 또한 묘원 안에 대전교구의 역사를 함께하는 제대를 안치하여 '황석정(黃錫亭)'을 건립했고, 제대 뒤 비석에는 성인의 신앙 고백인 "나는 천당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비록 만 번을 죽더라도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를 새겨 놓았다. 현재 삽티 성지와 월명산 정상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도앙골 성지'를 잇는 도보 순례길이 마련되어 있어, 숨죽이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선조들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2

간염은 유전된다?

B형 간염 보균자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유전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염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되는 것이다. 보균자인 어머니가 출산할 때 아이에게 수직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면 임신 전 B형 간염 백신과 함께 면역글로불린(HBIG)을 접종해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드물게 일부의 간질환은 유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윌슨병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그 원인 유전자가 보통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된다.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자가면역성 간염이나 특정 약제에 의한 독성 간염이 발생하는 과정에도 유전자 변이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어 유전의 가능성이 있다.

간염 중 B형 간염이 가장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간암 원인은 B형(70%)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많고, C형(20%)이 뒤를 잇는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간암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100명 가운데 5~7명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세계적인 B형 간염의 유행 지역이다.

연구에 따르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암의 발생 위험도가 10~30배 이상 높다. 또한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 및 치료 효과는 지역 및 인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의 진행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보다는 임상 경과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대부분(75~80%) 만성화하기 때문에 간경화 · 간암과 같은 치명적인 간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또한 C형 간염은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병이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송명준 교수**

1. 사제 인사 발령

부임일자 : 7월 22일(수)

성명	신임지	전임지
최효인	요양	한산 주임
한동성	요양	천안구룡동 주임
길기문	요양	관저1동 주임
이원화	당진성모병원 부원장	가오동 주임
홍성민	가오동 주임	성령쇄신봉사회 보좌
김민엽	세종 제4본당 주임	군종
신백철	관저1동 주임	천안두정동 보좌
박양신	천안구룡동 주임	군종
안동훈	한산 주임	대천 보좌
박상언	성령쇄신봉사회 보좌	군종
박종민(임)	대천 보좌	유학(로마)
박시용	천안두정동 보좌	종교교사 연수
서석빈	유학(프랑스)	종교교사 연수

THE CATHOLIC DIOCESE OF DAEJEON
천주교대전교구

2020년 후반기 사제 인사명령

2. 본당 신설

아래와 같이 1개 본당을 신설하며
대전교구의 총 본당 수는 143개입니다.

가. 세종 제4본당(가칭)

① 관할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제4생활권
② 신자수 : 333명
(112세대, 2020년 7월 13일 기준)
③ 모본당 : 세종 성바오로
④ 관할지구 : 공주지구

알립니다

전담사목

카나혼인강좌
- 때 : 8.1(토) 12:30~18:30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 4층 진리관
- 수강료 : 1인 25,000원
- 대상 : 혼인을 앞둔 미혼 남, 여
- 문의 : (042)256-5487~8 가정사목부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제11차 약혼자주말
- 때 : 8.7(금) 20:00~9(주일) 17:00
- 곳 : 부강 엠마우스 피정의 집
- 대상 :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혼인강좌 수료증수여), 혼인 2년 미만 신혼부부
- 수강료 : 1인 13만원
- 문의 : (042)256-5487~8 가정사목부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치유미사
- 때 : 매주 화 14:00
- 곳 : 새얼센터
- 내용 : 미사, 치유기도(영적,내적,외적)등
- 문의 : (042)824-6771 교구성령쇄신봉사회

성체강복과 함께하는 기도회
- 때 · 곳 : 7.23(목) 19:00~22:00, 새얼센터
- 선착순 : 60명 / 주제 : 용서
- 강사 : 성령쇄신봉사회 말씀봉사자
- 문의 : (042)824-6771 교구성령쇄신봉사회

젊은이 성령 기도회
- 때 · 곳: 매주 화 20:00, 새얼센터
- 대상 : 젊은이 누구나 참여가능
- 문의 : (042)824-6773 아자리야 선교단
- 아자리야 선교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azariah_1985) 참조
- 마스크 착용 필수

본 당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시설 이용 안내
- 휴가, 연수, 개인피정 등 다양하게 활용
- 콘도 및 솔밭 방갈로 이용과 솔밭 캠핑 가능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소독과 방역 철저히 시행
- 문의 : (041)934-7757 연중 이용 가능
- 인터넷 예약 : http://cialdwns2.cafe24.com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 때 : 9.12(토)~10.31(토) 매주 토 09:00~18:00 총 7주, 60시간
- 곳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상지관 9층 상지홀 / 접수 : 7.20(월)~8.19(수)
- 자격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근무자(선착순 30명)
- 교육비 : 50만원(식비, 교재비, 실습비 포함)
- 입학지원서는 홈페이지(www.cmcdj.or.kr) '교육/행사'에서 다운
- 문의 : (042)220-9419, 9004 / Fax 252-3325 E-mail hospice9419@cmcdj.or.kr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안심병동' 신경과 개설 운영
- 주일 · 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 (041)950-1008

생태영성학교 7기 교육
- 때 : 8.27(목)~10.8(목) 매주 목 19:30 (10.1 제외)
- 곳 : 대전 내동 성당
- 수료미사 및 생태탐방 : 10.10(토)
- 대상 : 생태환경에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 교육비 : 5만원 / 신청 : 8.17(월)까지
- 신청 및 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 홈페이지 : www.djeco.or.kr

영성강좌(원로사제들의 영성 나눔 시간)
- 내용 : 영성의 향기
- 때 : 9.1~12.15(16주간) 매주 화 09:30~11:30
- 곳 : 유성갑동사제관 내 성당
- 대상 : 성인 신자 누구나 / 선착순 30명
- 신청 : 네이버 블로그 '갑동 사제관'
- 강사 : 김영교 신부, 박재만 신부, 강석준 신부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 캘리그라피, 전례초조각, 가곡/성가, 영성강좌, 일일피정, 성경공부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내적치유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 2020년 가을학기 임상사목교육(C.P.E.)프로그램
- 때 : 8.26~12.12 -평일반, 토요반 / 선착순 모집
- 곳 : 섭리C.P.E센터 / 필요시 화상수업 포함
- 문의 : 010-8863-3637 천주섭리수녀회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화 20:0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 단장 : 서옥경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파티마 세계사도직(쎌)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8.1(토) 시작기도 09:30, 미사 10:3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문의 : 010-4939-8688

오기선 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 · 곳 : 7.20(월) 15:00, 천안오룡동성당
- 미사집전 : 황인국 몬시뇰, 오승진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9894-8004, 010-8802-3860

수도회 및 피정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 성경완독피정 : 8.4(화)~12(수)
- 하계피정 : 8.14(금)~16(주일)
- 문의 : 010-3340-0201

8월 평화계곡 피정의집 향심기도피정
- 1박2일 : 8.1~2 / 2박3일 : 8.7~9, 8.21~23
- 대상 :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선착순 10명)
- 문의 : 010-3422-7587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도회수사들과 제주성지 · 역사 ·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 항공 예약 포함하여 접수가능
- 자연순례피정 : 8.17~19, 8.21~23
- 자연순례피정 / 우도자유일정 : 7.25~28, 8.1~4, 8.6~9, 8.12~15
-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때 : 7.27~29, 7.31~8.2, 8.13~16, 8.25~27, 8.31~9.2
- 1인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 문의 : (064)796-9181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모임
- 때 · 곳 : 수시로,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 문의 :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베타니아 성물센터 묵주반지, 전례복, 전례용품 국내외 성물 T. (042)226-8980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랑(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042)532-7009	**대전성모안과** 원장: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솔뫼우드산림산업(주)** "산주님 고민하십니까?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대리경영)" 대표 박성현(토마스) T. (041)751-8833	**이안과병원** 63주년 기념 전문분야별 6인 진료 T. (042)220-5500, 220-5701
이바르게 치과교정과 치과 원장 : 홍성규(미카엘) 교정전문의 브라켓없는 3D 디지털투명교정 이바르게가 함께합니다(1996개원)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맑은눈 안과** 라식,라섹,노안,백내장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한강 외과** 치질, 대장내시경, 외과수술 김성철(대철베드로) 오룡역 2번 출구 T. (042)523-9856	**척추 · 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 · 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효안과 (전, 눈빛안과) 노안 · 백내장 · 라식 · 라섹 이효(바오로) T. (042)486-5050 둔산동 1110번지 8층 경성큰마을 사거리	**40년 전통 〈 팔보효소 〉** ▶ 정하상 효소피정 ▶ 간헐적단식 ▶ 해독요법 ▶ 부모님 건강 선물 ▶ 미 · 중국 수출 ▶ 지리산 산청 발효 www.palbo.co.kr T.1600-0830	**이광우 치과** 원장 이광우 타데오 타임월드 별관 2층 T. (042)483-7528, 489-7528	**광고 모집** (042)257-0190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의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 7월 20일(월)~31일(금) – 피정

교구장 동정

7월 20일(월)~26일(주일)

교구 기관 및 본당 공동체 소식

자세한 내용은 대전교구 홈페이지(www.djcathol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지원 성금 전달식

교구 사제단은 7월 6일(월) 교구장 집무실에서 자모원에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지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코로나19 긴급 생계비는 90,000,000원으로 교구 사제단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금한 성금 중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자모원 출신 23가정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교구 사제단은 앞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칠레, 페루에도 교구 사제단이 모금한 성금 중 일부를 전달했다.

당진성모병원 당진수청1지구로 이전 협약식

대전교구(교구장 유흥식 주교)와 당진시(시장 김홍장),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조합(조합장 최석호)은 7월 8일(수) 교구청 회의실에서 '당진성모병원 확장 이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구장 주교와 총대리 주교, 당진성모병원장 등 교구 사제들과 당진시장,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조합장, 당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으로 당진성모병원은 설립 70주년인 2023년에 당진수청1지구(면적 9,917m²)로 확장 이전하게 된다. 또한, 당진시는 당진성모병원에 소아청소년을 위한 전문 치료센터와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 그동안 시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태석 신부 제자들의 이야기

영화 부활 할인 이벤트

● 기간 : 7.10(금)~종영 시까지
● 극장 : 〈부활〉 상영 중인 전국 CGV

1. 〈부활〉 할인 이벤트 안내된 온 · 오프라인 대전주보 지참 후 매표소에 인증 시 1인당 6천원 발권
2. 20인 이상 단체 관람 시 1인당 6천원 발권
3. 유의사항
   – 타 쿠폰 및 이벤트 중복할인 불가 / 현장발권에 한함

후회에서 벗어나기

캐서린 J. 헤르메스 지음 / 배기선 옮김 / 255쪽 / 바오로딸 / 14,000원

살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해 보셨나요? 이 책에서는 성경의 풍부한 예시와 함께 나 자신이 문제로 느끼며 후회했던 감정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후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내 마음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심을 깨닫게 됩니다.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오늘의 강론」 7월 20일(월)~25일(토) 오전 6시 50분~7시 세종성요한 보좌 국일호 신부 편

환자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생각병원 척추 · 관절 · 골절 · 내과 · 검진 월평동 선사유적지 옆 T.(042)337-0001	이화병원 (041)579-1400 산부인과, 내과, 암케어센터, 공단검진 3D유방초음파, 영상의학과, 산후조리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남선익스프레스 (행복나눔 이사) 이승원(요한 보스코)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6671-2489	광고 모집 (042)257-0190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업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꼬
광고 모집 (042)257-0190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홈플러스 옆	광고 모집 (042)257-0190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라파엘여행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T. (02)778-8565 www.clubraphael.co.kr
비움 심리상담센터 정부청사역 T. (042)863-9877 부부가족, 아동청소년, 우울 트라우마, 불안, 왕따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대표원장 양준영(가롤로) 전충남의대 교수 T.(042)345-7700 유성구 봉명동 604-1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킴벨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제25회
농민 주일 담화

생명 농업, 지구와 인류의 희망입니다!

인류의 위기

2020년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 세계의 바이러스에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지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공략해 올 때, 과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암중모색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된 농업

20세기 후반 농업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갑절로 증대되었습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를 태워 공장에서 생산한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 덕분에 작물의 생산량은 크게 늘고 농촌의 노동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옮아가면서 부가 축적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해진 이들도 있지만, 아직 전 세계에서 10억 명에 이르는 인구가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현실은, 농업의 산업화가 농업의 바람직한 길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자본을 기반으로 산업화된 농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큰 수익을 내지만, 영세한 농민들은 힘겨운 노동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석유의 30퍼센트가 농업에 사용되고, 식량 생산의 95퍼센트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산업형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형 농업은 토양 생물을 실종시키며 토양 산성화와 수질 오염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산업화, 도시화만이 살길이라고 농업과 농촌을 천시하며 살아온 세월이 반세기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고, 노인만 남겨진 농촌 사회는 초고령화되어 농촌 공동체의 붕괴 위기, 환경과 식량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땅은 죽어 가고,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3퍼센트로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곡물 생산국들이 식량 수출을 통제할 경우 우리나라는 당장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농업을 그저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효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의 논리로만 평가하면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농업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뿌리이며 생명입니다. 농업은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며 토양과 수자원을 관리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자연 생태계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인류와 자연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며 지구를 지키는 현장입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만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 사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우리 나라에서 산업화로 농촌의 붕괴가 시작되자, 한국 교회에서는 농민들 스스로 '가톨릭 농민회'를 세워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토대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입 농산물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여 농업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세상,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생명 가치를 확립하고자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유기 순환적 농법으로 토양과 생명을 회복시키고, 도시 소비자들은 생명 농산물을 소비하며 지지해 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 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농민이 짊어진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 농업이 직면한 현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깨닫고, 근시안적인 시장 가치만 추구하기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바라보며 농촌과 농민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과 창조 질서를 보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라야 인간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사회 복음화를 이루어 갑시다.

2020년 7월 19일 제25회 농민 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